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 개최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점검·대응 강화,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6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기재부 1차관 주재. 외교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4.14일(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4.15일(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14일(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23년 기준)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4.14일(일) 사태 발발 직후 가동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도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편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보다 밀도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태로 인한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사무관 김영진 (kimsupa304@korea.kr)

